

No.34

Japan Weekly Digest

2010. 5. 10 ~ 5. 16

□ 금주의 이슈

- 美교통장관, 품질개선 확인차 도요타방문
- 인재대국 재건을 위해 이공계 인재를 소중하게 대우해야
- 산업혁신기구 등 호주의 수도회사 M&A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경단련, 5년 만에 중국 경험단 파견
- 민주당, 소비세인상을 참의원 선거공약으로 추진
- 일본태양전지협회, 아시아연계를 위한 협의기구 설립
- 한중일, 아시아 전자도서관 설립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모노즈쿠리백서('10판)에서 선진국시장 중시전략 제시
- 나오시마 경산상, “성장전략특구” 언급
- 경산성, 2030년 로봇시장 9.7조엔 규모로 성장예측
- 경산성, 한일 지적재산권 인재육성 강화 MOU체결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일본경제 재생을 위한 정책 긴급 제안, 요미우리 (2010.5)



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,
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(Tel.02-3014-9888)

- **美교통장관, 품질개선대책 시찰을 위해 도요타 방문**
 - 美교통장관은 10일, 대규모 리콜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품질개선에 관한 대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도요타 자동차를 직접 시찰
 - 토요타사장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도요타의 개선대책에 대해 평가하면서도 리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격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추가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
 - 美교통장관은 「품질개선 조치는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도요타의 움직임에 주시 하겠다」고 언급
 - * 교통장관은 نيسان자동차사장, 혼다자동차사장도 면담하였음
- **인재대국 재건을 위해서는 이공계 재능을 소중하게 활용해야**
 - 일본경제신문 9일자 사설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에는 일본인기술자가 100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술자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자를 소중히 대우하고 연구 성과도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
 - 해외기업으로 전직한 기술자들의 인터뷰결과 연구 성과의 보상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
 - 일본이 인재대국으로 재건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임금제도의 개혁이라고 지적
 - 해외기업은 일본기술자에게 2배의 연봉을 약속해 이직하는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 개발 실적에 걸 맞는 보수제도로 개편이 시급하다고 제언
- **산업혁신기구, 미쓰비시상사와 공동으로 호주의 수도회사 M&A**
 - 산업혁신기구와 미쓰비시상사는 11일, 호주의 수도회사 유나이티드·유틸리티즈·오스트레일리아(UUA, 순위2위)를 100% 인수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
 - 인수금액은 1억7600만 호주달러(약146억엔)로 승계채무는 4,900만 호주달러(40억엔). 해외에서 물(水)비즈니스 관련 M&A는 첫 번째 사례임
 - 나오시마 경산상은 성명을 통해 「일본기업이 목표로 하는 세계 물 비즈니스 운영·관리분야에 진출한 첫 사례로 신성장전략의 중심인 시스템수출 확대라는 관점에서도 대단히 의의가 있다」고 평가
 - * 산업혁신기구는 산업재생 및 산업혁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관민공동 투자펀드임

- **경단련 5년 만에 중국에 경험단 파견**
 - 일본경단련은 11일부터 15일까지 미타라이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험시찰단을 베이징에 파견했음. 경단련이 파견한 경험단은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임
 -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큰 중국 수뇌들과 정책대화를 통해 중일 경제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
 - 미타라이 회장은(요네쿠라 차기회장 동행) 교류 정례화 방안과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해 중국에 제안
- **민주당, 참의원 선거공약으로 소비세인상을 추진**
 - 민주당은 13일, 매니페스토 기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의원 선거공약으로 소비세 인상율을 명기할 방침이라고 발표
 - 호소노 副간사장은 「재정재건을 위해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합의했다. 차기 총선거 후 소비세 인상율을 명시하게 될 것」이라고 언급
 - * 재정재건은 주요 선거공약. 2014년 이후 소비세를 포함한 근본적인 세제개혁방안을 결정할 방침
- **일본태양전지협회, 아시아와 연계를 위해 새로운 기구 설립**
 - 태양전지회사로 구성된 일본태양전지협회는 중국과 한국 단체와 함께 「아시아·퍼시픽 태양광발전 산업협의회」를 설립
 - 태양전지 산업발전을 위해 아시아단체와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목표이며 역내 태양전지 생산량이나 수요 통계, 각 지역의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 조사 등의 분야에서 협력
 - * 정례회의는 매년 2회 개최 예정
- **한중일 아시아전자 도서관 설립, 자국어로 전자도서 검색**
 - 한국, 중국, 일본 3개국 국립도서관은 6월 하순 협정을 체결, 각 도서관이 전자화한 도서를 인터넷에서 자국어로 검색하고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
 - 3개국 도서관은 「한중일 디지털 도서관추진협의회」를 설립하고 향후 한중일 전자도서 공개에 관한 다양한 문제와 대책 등을 협의할 예정

○ 모노즈쿠리백서에서 선진국시장 중시 전략을 제시

- 경제산업성, 후생노동성, 문부과학성은 11일, 합동정책회의에서 「2010년판 모노즈쿠리백서」를 발표
- 모노즈쿠리백서에는 일본을 고부가가치 부품 공급기지로 활용하여 선진시장에 적합한 제품 생산과 수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언
- 신흥시장은 계속 확대되겠지만 일본, 미국, 유럽이 차지하는 GDP는 비중은 54%로(2015년 기준)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

○ 나오시마 경산상, “성장전략특구” 언급

- 나오시마 경산상은 10일, 아시아조사회 주최의 강연에서 「일본의 성장을 위해 특구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. 가능하면 대규모로 진행시키고 싶다」고 언급, 정부의 신성장전략에 특구제도를 제시할 것으로 보임
- 나오시마 경산상은 아시아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일본의 경제성장과 연결된다고 언급하면서 성장전략특구의 필요성을 강조

○ 경산성, 2030년 로봇시장 9.7조엔 규모로 성장 예측

- 경제산업성과 「신에너지·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」(NEDO)는 향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봇산업 시장전망을 발표
- 로봇산업은 제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새로운 분야에 로봇보급이 확대되어 2035년에는 9.7조 엔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

* 2020년 : 2.9조엔 → 2035년 9.7조엔

○ 경산성, 한일 지적재산권 인재육성 강화를 위해 MOU체결

- 경제산업성은 13일, 도쿄에서 개최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일인재육성기관연계회의에서 일본의 독립법인 공업소유권정보와 한국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간 공동연수와 정보교류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
- 한일 양국이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인재육성을 하는 것이 목적

‘일본경제 再生을 위한 정책전환’
요미우리 긴급제언(2010.5)

○ 문제제기

- 경기회복 징후가 있지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「10년 不況」에 대한 극복 목표가 서있지 않음
- 일본의 財政은 파탄 기로에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하토야마정권은 財源없는 선심정책을 수정하고 성장촉진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
- 法人稅 실효세율을 20%대로 인하시켜야하고 새로운 通商戰略을 수립하는 등 요미우리신문사는 經濟再生을 위한 5개 항목에 대해 緊急提言

○ 제언내용

1. 매니페스트 不況을 차단할 것 : 정책 미스로 일본을 파멸시키지 마라
 - 민주당은 선거승리에만 고집하지 말고 디플레 극복이나 성장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함
 - 財源없는 정책은 포기하고 파급효과가 큰 의료나 고용창출에 투자 필요
 - 소비세 인상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을 설득시켜야 함
 - 재정재건 목표를 명시하고 파탄을 막는 길을 찾아야 함
2. 공공투자도 사람도 중요 : 디플레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투자가 필요
 - 공공투자를 좌악시 하지 말고 지방 활성화를 도모하라 : 필요한 인프라는 정비
 - 공공투자는 즉효성이 높아 지방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
 - 급부만이 사회보장이 아님. 의료·간병에 관한 시설도 중요
3. 雇用이야말로 安心社會의 원점 : 복지는 산업 활성화에 도움
 - 의료복지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의료복지재원을 아껴서는 안 됨
 - 일하기가 쉬운 직장과 시스템을 통해全員참가형사회 구축이 필요
4. 内需와 外需의 두 마리 토끼를 쫓을 것 : 국민공동 해외수요 개척
 - 법인세를 인하시켜 기업 활동이 쉬운 환경을 만들고 기업유출을 막아야 함
 - 국민 협력으로 인프라수출을 본격화시켜 신흥시장을 확보
 - 세계와 경제연계 기회를 상실하지 말고 아시아 각국과 FTA를 서둘러야 함
5. 技術로 국제경쟁에서 승리 : 첨단 분야에 집중 투자하자
 - 환경·에너지로 세계를 리드하고 특히 EU, 스마트그리드는 주도권 확보
 - 첨단기술개발과 산업화에 전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시급
 - 고등교육을 재검토하고 이공계 인재 확보와 외국인 인재 유치가 필요

【일본 관련 주요 보고서】

□ 『일본의 글로벌리제이션 이익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5월8일

- 향후 일본경제는 아시아경제 약진이 큰 성장 기회가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음. 일본은 아시아로부터 인재, 투자를 확대시키지 않으면 아시아는 다른 국가들과 관계강화를 추진하게 되어 성장의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음

<http://www.mizuho-ri.co.jp/research/economics/pdf/research/r100501point.pdf>(출처)

□ 『일본의 재정파탄은 피할 수 있는가』 종합연구개발기구, 5월11일

-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는 국채금리의 상승과 재정수지를 악화시킴. 일본이 이러한 폐쇄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카이세대의 고령화로 세출이 늘어나는 2012년~22년까지 부가세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화는 불가피

<http://www.nira.or.jp/pdf/taidan55.pdf>(출처)

□ 『일본의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해』 노무라종합연구소, 5월12일

- 저탄소사회의 도래나 세계장기불황이라는 경제상황에서 일본제조업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업계재편을 전제로 공적자금 도입과 에너지절약 상품의 구입을 계속 촉진시키는 사회시스템 구축이 필요함

<http://www.nri.co.jp/opinion/chitekishisan/2010/pdf/cs20100302.pdf>(출처)

【금주의 일정】

일자	주요 일정
5/10(월)	○ 미타라이 경단련회장 기자회견 ○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 개최
5/11(화)	○ 산요전기 경영방침 설명회 개최 * 도요타 3월기 결산 발표
5/12(수)	○ 3월 경기 동행지수 발표(내각부)
5/13(목)	○ 4월 경기Watcher조사 발표(내각부) ○ 4월 Money Stock 발표(일본은행) ○ 3월 국제수지 발표(재무성) ○ 日공업소유권정보과 韓국제지식 재산연수원 MOU 체결
5/14(금)	○ 3월 특정서비스산업통계 발표(경산성) * 5월 15일~16일 : 한중일 외무장관회의 개최(한국 경주)

【파트너를 찾습니다】

선박(어선)용 엔진절감장치 판매대리점 모집

- 의뢰기업명 : S기업(상세 기업명 개별공개 예정)
- 일본 S기업(상사)에서 어선용 연료절감장치(메이커:니혼테크노)를 한국내에서 선주(船主)를 대상으로 판매해줄 대리점을 찾고 있습니다.

초소형 프레이즈반(밀링머신) 판매 / 부품조달

- 의뢰기업명 : 에노모토 공업
- 일본의 에노모토 공업으로부터 초소형 프레이즈반 한국 판매 및 해당 부품의 (한국으로부터의) 조달에 대한 의뢰가 있었습니다.

스텐레스단조 부품(반도체제조장치용 밸브) 조달

- 의뢰기업명 : U공업 (기업명 추후 공개)
- 일본에서 한국의 스텐레스단조메이커를 찾고 있습니다.
- 용도 : 반도체제조장치에 사용되는 밸브부품
- 향후일정 : 추후 도면제공, 공장견학 예정

특허리포트 판매 희망

- 의뢰기업명 : 네오테크놀러지
- 일본기업 네오테크놀러지(www.neotechnology.co.jp)에서 한국 출판사 또는 기업(전자분야)을 대상으로 특허 리포트 판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

다중접합기술, DB기술 제공 희망

- 의뢰기업명 : S기업(상세 기업명 개별공개 예정)
- 일본의 S기업으로부터 '다중복합기술'과 'DB기술'을 제공(판매)하고 싶다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.

* 관심있으신 회원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 비즈니스협력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 : 전재용 선임연구원
Tel : 02-3014-9845 / jjyun@kjc.or.kr

